

권구현과 한용운 시조의 문학사적 의의

— 1920-1930년대 시조부흥운동의 재인식 —

여 지 선*

〈국문초록〉

시조는 우리 민족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장르이다. 특히 1920년대-1930년대에는 최남선, 주요한, 이병기, 이은상 등의 국민문학파에 의해 시조부흥운동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프문인 권구현과 非文壇人 한용운 등도 시조에 지극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카프 동인이자 아나키스트였던 권구현은 『흑방의 선물』(1927)을 발간하였는데, 이 시조집은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와 함께 20년대에 발간된 단 2권의 개인 시조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남선을 비롯한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운동만 주목되고, 권구현의 시조집은 조명 받지 못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문단이 반공이데올로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나, 도리어 그가 카프동인이자 아나키스트였다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시조”(조운, 1927), “시조형의 프로시”(박영희, 1959)를 개척한 성과를 낳았다.

비문단인 한용운은 『님의 침묵』(1926) 시인으로 주목되어 시조시인으로는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시조는 독립운동가 한용운, 승려 한용운 등 그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였다. 한용운의 시조에 대한 애정은 첫 발표작인 〈무궁화를 심고자-獄中詩〉(1922)가 『님의 침묵』보다 4년이나 앞선 것과 자유시 창작이 부진했던 1930년대에 시조창작을 지속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한용운의 시조는 ‘전통장르 시조’가 유학자 및 유학의 세계관을 넘어서 승려 및 불교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 있다.

본고는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 연구를 통해서 1920년대-1930년대 시조의 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통장르 시조는 1920년대-1930년대에 국민문학파 뿐만 아니라 카프문인 권구현과 비문단인 승려 한용운 등 문단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본고는 당시 시조창작이 카프의 안티세력에 의한 부분적인

* 전국대

운동이 아니라 1920년대-1930년대의 시대정신에 의거한 카프문인,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전반적인 운동이었음을 밝혔다.

핵심어 :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운동, 권구현, 한용운, 『흑방의 선물』, <무궁화를 심고저>

1. 서론

개화기에 활발히 창작되었던 시조는 1910년대에 잠시 부진한 양상을 보이다 1920년대 들어 다시 부흥기를 맞았다.¹⁾ 근대문학에서 시조의 부흥은 문단적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최남선이 1926년에 시조의 가치를 역설하고, 『조선문단』에서 시조를 공모하자 시조 창작이 활발해졌다. 또한 『신민』이 “시조는 부흥할 것인가”(1927)라는 특집을 마련하였는데, 지식인과 문인들이 시조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시조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시조집 발간으로 이어졌는데,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년)와 권구현의 『흑방의 선물』(1927년)²⁾이 그것이다. 1920년대의 시조부흥현상은 『동아일보』의 “시조는 어찌케 전개시킬까”(1932)라는 특집을 계기로 시조형식론으로 확대되었고, 실제 창작에서는 이병기, 이은상 등에 의해 시조형식의 변혁이 시도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1930년대의 시조창작은 최남선, 권구현, 이병기, 이은상, 한용운, 주요한 등 많은 시조시인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 1) 10년대-40년대 초까지 주요 잡지를 중심으로 시조 발표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잡지명	학지광	태서문예신보	창조	개벽	동광	신민	조선문단	조선지광	문장
편수	1	0	0	10	66	32	47	0	127

- 2) 권구현의 『흑방의 선물』은 시가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전체가 일련번호 즉 (1)-(50)번에 달하는 시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조집으로 간주한다.

그간의 연구는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에 집중되었다. 이는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의 왕성한 시조창작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나 그동안 시조창작 및 시조부흥의 성과가 국민문학과 의 몫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1930년대 시조의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국민문학과 뿐만 아니라 당대 문단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시조시인 중 권구현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시조의 총체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연구는 그동안 국민문학과가 부여받은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의 업적 폄하가 아니라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의 문학사적 의의를 확대하는데 있다. 시조가 1920년대-1930년대에 서구 자유시 물결에 밀려 사라질 고루한 장르가 아니라 당대의 담론을 담아낸 근대적 장르로 계승되었음을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2. 프롤레타리아 시조-카프 문인 권구현

1) 선행연구 분석 및 정정

권구현은 1898년 8월 17일에 태어나 1938년 6월 이후에 순천에서 자살한 시인이다. 1926년 『시대일보』에 시조 4편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권구현은 이듬해 시조집 『흑방의 선물』을 출간하였는데, 『흑방의 선물』은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와 함께 1920년대에 발간된 개인 시조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구현의 활동은 시조창작 외에도 평론, 소설, 한국회화사 정리 등 여러 분야에서 걸쳐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지만, 권구현에 대한 조명은 미비하다. 특히 권구현의 시조연구는 조동일이 1920년대 시조부흥운동

을 논하면서 최남선, 이은상, 이병기를 중심에 놓고, 기타 시조평에서 권구현의 의의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³⁾, 본격적인 연구는 고현철의 소논문이다.⁴⁾ 대부분 연구자들은 권구현의 아나키스트 문학론만을 연구하거나, 아나키스트 시인의 습작기 시조로 언급할 뿐이다.⁵⁾ 권구현 연구를 가장 체계적으로 시도한 조두섭 역시 권구현은 아나키스트 시인이며 시조에 대한 것은 유랑시절 경험한 시조창과 시조습작에 불과하다⁶⁾고 평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권구현이 『흑방의 선물』을 출간하였을 때, 『동광』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무산계급의 시가”⁷⁾라고 평을 받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었다. 당대에는 무산계급의 시가로 주목받았는데 오늘날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두섭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정치적 요인으로, 1920년대 우리나라 아나키스트들은 볼셰비즘으로부터는 반사회주의자로 내몰리고 동시에 민족주의자 의해서는 이념은 같되 방법만 다른 사회주의자로 평가된 바처럼, 우리나라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역사 속에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문단 내적 요인으로, 아나키즘문학가

-
-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6, 291-293쪽.
 - 4) 고현철, 「권구현(權九玄) 시조연구」, 『국어국문학』,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0.9.
 - 5) 김덕근, 「黑星 權九玄論」, 『우암논총』, 청주대학교대학원, 1992.2.
김덕근, 「한국문학의 아나키즘 수용 연구」, 『인문과학논집』,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4.12.
박용명, 「民族的 抵抗, 아나키스트 詩人の 苦惱」, 『홍익어문』, 홍익대 홍익어문연구회, 1992.4.
김경복, 「권구현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론」, 『국어국문학』, 부산대국어국문학과, 1995.12.
 - 6) 조두섭, 「권구현시연구」, 『대구어문논총』 7호, 대구어문학회, 1989.
———, 「權九玄의 아나키즘文學論 研究」, 1994.6.
———, 「1920년대 한국 아나키즘시의 두 양상」, 『인문과학연구』,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12.
 - 7) 『동광』 13호, 1927.5, 72쪽.

들은 초기 카프내에 함께 활동하던 계급문학가들과 논쟁을 벌리며, 그들과 다른 이념을 선언함으로 그들이 기록한 회고적 문학사에서 활동이 축소되어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한 초기 문학사에서 이들의 문학적 성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아나키즘문학 자체의 요인으로, 원래 아나키즘 사상 자체가 자유를 원칙으로 하듯이 이들은 카프 조직적 응집력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권구현 자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권구현은 1935년 이후 문학 활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나키즘을 실험한 시인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⁸⁾

조두섭의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아나키스트는 역사 속에 묻혀진 존재이다. 둘째, 아나키스트들은 계급문학가들이 기술한 문학사에서조차 축소되었다. 셋째, 아나키스트들은 자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없다. 넷째, 권구현은 1935년 이후 문학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권구현은 아나키즘을 실험한 시인 정도로 인식됐던 것이다.

조두섭의 지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구현이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에 계급문학과에서도 국민문학과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묻혀 외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프롤문학과의 일원이었으며, 아나키스트였던 권구현이 시조집을 발간한 사실로 더 주목해야 한다. 카프문인이며, 아나키스트였던 권구현이 시조창작을 하였다는 사실은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운동, 전통의 지속성이 국민문학과만의 노력이 아니라 당대 문단을 초월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는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권구현의 선행연구에서 정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권구현의 사망시기인데, 조동일, 조두섭, 박명용은 권구현의 사망시기를

8) 조두섭, 「權九玄의 아나키즘文學論 研究」, 383-384쪽.

1937년으로 제시하지만, 1938년 4월, 6월에 그의 개인전 광고가 실린 것으로 보아, 그는 적어도 1938년 6월 이후에 사망한 것이다.

① 권구현(權九玄, 1902?-1937)⁹⁾

② 1937년 그가 순천에서 박봉이 여사와 동거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삶은 마감된다.¹⁰⁾

③ 1937년 봄 전남 순천에서 자살했다¹¹⁾

④ 「화가 천마산인 개인전을 개최, 사계의 권위 천마산인 권구현씨의 내하를 기회로 본보 하동지국 주최와 일반유지 후원하에 내5월1일 하동읍내 불교포교당에서 개인 미술전람회를 개최하게 된 바 때는 바여호로 무르녹으려는 봄이라 그림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준경과 산수를 일반은 많이 감상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다.」(『동아일보』, 1938.4.24.)

⑤ 「천마산인 화백의 지리산 개인전」 천마산인 권구현 화백의 내하를 기하여 본보지국 주최로 개최차였다 함은 기보한바거니와 동화백은 다시 명승지 지리산 상계사에서 장수지의 유지 제씨의 주최와 본보지국의 후원으로 지리산 사생을 주로하는 개인전을 이달 19일에 개최하게 된 바(『동아일보』, 1938.6. 14.)

①은 조동일의 견해이고, ②는 조두섭의 견해이며, ③은 박명용의 견해인데, 모두 1937년 사망설에 기초한다. 반면 ④와 ⑤는 당대 『동아일보』 기사인데, 그 요점은 권구현이 “來賀한 기회”로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는 권구현이 생존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의 사망 시기는 1938년 6월 이후로 추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권구현이 첫 시조를 언제 발표했는가의 문제이다. 권구현

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291쪽.

10) 조두섭, 『權九玄의 아나키즘文學論 研究』, 16쪽.

11) 박명용, 『民族的 抵抗, 아나키스트 詩人의 苦惱』, 560쪽.

의 등단설은 두 견해가 있다. 1925년 6월 7일 등단설과 1926년 등단설이 그것이다. 1925년 6월 7일 등단설은 박명용에 의해 제기된 것이고¹²⁾, 1926년 등단설은 조두섭이 제기한 것이다.¹³⁾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권구현의 등단일은 1926년 6월 7일이다.¹⁴⁾ 그런즉 박명용의 1925년 등단설은 오기이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박명용이 권구현에 대한 단행 연구를 처음 시작하였기 때문에, 권구현 양력에 대한 박명용의 분석을 따르는 논자들이 있어 이를 정정한다. 이처럼 권구현의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는 첫걸음으로 『흑방의 선물』의 의의와 “프롤레타리아 시조”¹⁵⁾를 살펴보자.

2) 『흑방의 선물』과 프롤레타리아 시조

권구현은 1926년에 최남선이 시조창작을 독려하기 이전인 1920년대 초부터 시조를 창작하였으며, 1927년에는 시조집 『흑방의 선물』까지 발간하였다. 권구현의 시조창작 의의에 대해 1920년대 문인인 조운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권구현의 시조는 시대일보에서 한 20수 읽고 월간으로 된 조선지광에서 몇 수 읽었다(중략) 내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탄 색채가 띄었다. 그는 재래의 시조가 화조풍월만을 읊거나 또 유심관념만을 기조로 하든 것에 반하여 현대생활 의식을 표현하려고 하고 물질고를 읊으려 하였다.(중략)(사회주의자가 이런 글을 보면 또 프롤레타리아 시조라 하지 않을까?)¹⁶⁾(밑줄-인용자)

조운은 권구현의 시조를 읽고 재래의 시조와의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12) 위의 글, 560쪽.

13) 조두섭, 『權九女의 아나키즘文學論 研究』, 392쪽.

14) 權九鉉, 『時調四章-(놀런이의 노래에서)』, 『시대일보』, 1926.6.7.

15) 조운, 『병인년과 시조』, 『조선문단』 19호, 1927, 35쪽.

16) 위의 글, 35쪽.

재래의 시조가 조선시대의 시조인지, 당대의 다른 시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조풍월과 유심관념을 기조로 한 시들이다. 이 시조들과의 차별성은 곧 “현대생활의식을 표현”하는 것이고 “물질고를 읊”는 것이며,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 시조”라는 것이다.

조운의 지적에서 권구현 시조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1920년대의 현대생활의식을 표현하고 물질고를 읊었다는 측면에서, 권구현의 시조가 고루한 옛 것의 지속이 아니라 현대(1920년대)의 문제를 담아내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것이다. 이는 권구현이 유랑시절 민중들의 사회적·개인적 문제를 공유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담고자 했던 것과 관련 있다. 이는 1970년대에 신경림이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면서 써낸 참여시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물질고를 폭로한 것은 그의 민족의식과 연관되는데, 이는 그의 유년 시절의 체험과 관련이 깊다. 그의 아버지 효준은 조부 밑에서 한학을 공부한 시골 처사로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녀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웠으며, 천석농사를 경영하면서 춘궁기에 소작인들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¹⁷⁾ 이러한 조부 밑에서 성장한 권구현은 가난한 이웃의 삶을 통해 망국의 현실로 시적 대상을 확장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시적 대상은 가난한 이웃, 가난한 조국, 망국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카프문인 권구현에게 인식되는 현대생활의식과 물질고란 식민지 시대, 계급사회에서의 민중의 의식과 고충이었다. 이는 시조가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당대, 즉 근대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현재적 장르임을 입증한 것이자, 민중의 삶을 담아내는 프로시조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사설시조의 발생 및 성장과 견줄 수 있으며, 이는 시조의 유연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17) 조두섭, 「權九玄의 아나키즘文學論研究」, 386쪽.

또 다른 의의는 “프롤레타리아 시조”라는 평에서 알 수 있듯이, 시조 창작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조창작층은 국민문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부계층으로 인식됐는데, 권구현의 시조창작으로 시조의 창작계층이 안티 카프세력인 국민문학과를 넘어서서 카프문인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는 박영희의 회고에서도 확인된다.

이 첫째의 경향을 나타낸 것은 권구현의 시집 『흑방의 선물』이었다. 이 시집은 1927년에 돌연히 나타난 것으로 더욱이 당시에 시조 같은 것은 돌아다 보지도 않던 혁명의식만이 듬뿍 차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시조형의 프로시란 대단한 기이한 존재였다. 당시 프로시단에는 아무도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냥 묵살하여 버렸던 것이다. 더구나 방향전환기의 프로시는 소작쟁의단이나 동맹파업단에 가서 여러 사람을 선동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극성이 많은 투쟁구의 나열에 만족하던 때라 이러한 시형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무시하여 버렸던 것이다.¹⁸⁾(밑줄-인용자)

위 인용문은 박영희가 1959년에 『사상계』에 회고한 글이다. 박영희는 권구현의 시조집을 돌연히 출현했다고 하였는데, 이때 “돌연히”는 ‘의미 없음’이 아니라 ‘낯선 것’을 의미한다. 1920년대 후반 프로문학은 “혁명의식만이 듬뿍 차” 있었기 때문에 시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권구현은 프로 문학으로서의 시조의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그래서 권구현의 시조창작은 낯설음과 동시에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평은 “시조형의 프로시”라는 평가에 있다. 박영희의 평가대로 권구현은 “시조형의 프로시”를 형성해 냈던 것이다. 이는 시조창작계층의 확장뿐만 아니라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의 성과가 국민문학과만의 것이 아닌 카프문인

18) 박영희, 「한국현대문학사」, 『사상계』 68호, 1959.3, 85쪽.

도 동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구현의 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구현은 4편의 시조를 『시대일보』(1926년)에 발표하면서 등장하였다.

- ① 피투성이 이몸을 殘忍타만 말마소
각을 끈호니 나도곳 生佛이언만
밥무침 이짜이야 逃避할줄이 잇스다.
- ② 감혈만그대설음 生命을업케리니
흘으는물이야 거긋이잇스라만
心腸의動搖에다 귀를기우리소.
- ③ 懸吐에時計도니 이몸도늙으시고
애달고나 짧은一生 秒秒앗갑건만
밤낮업는機械살림 時間더되어원수로다.
- ④ 여울에몰닌고기 물춤아 恨을마라
그물넘어저면에는 大河를원했스니
넘어아가든마든 아니셀물잇스라.

— 「時調四章-{눌린이의노래에서}」¹⁹⁾ —

위 시조는 등단작으로, 인생의 고난과 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다. “피투성이의 몸, 설움, 여울에 몰린 고기”는 현재 시적화자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가는 가난으로, 민족적 입장에서가는 식민지 현실로 인한 억압의 문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권구현은 문제상황(“물”)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자(“대하”)한다. 이렇듯 권구현의 시조 세계는 가난과 억압에 대한 폭로로 압축된다. “식민지 민족의 울분, 민족적 의지, 구름에 가린 민족의 본연, 상실된 주권에 대한 동경 등이 ‘恨’의 정조를 조성”²⁰⁾하면서 시조로 형상화

19) 權九鉉, 「時調四章-{눌린이의노래에서}」, 『시대일보』, 1926.6.7.

된 것이다.

넘업는게 싫다마오
밥업는게 더싫데다

恨百年 묘실님이야
暫時그려 엇드리만

죽지못해 하는종질
압박만이 報酬라오

— 〈其二〉, 『흑방의 선물』 —

〈其二〉는 님이 없는 것과 밥이 없는 것을 대조하여 물질고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있다. 밥이 없기 때문에 종질을 하였지만 종질의 보수는 압박뿐이라고 폭로함으로써 물질고의 심각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는 권구현이 유년시기와 유랑시절에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민중의 배고픔을 시화한 것인데, 여기에서 밥이 의미하는 것은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식량일 것이고, 종질을 하는 자에게는 자유이며, 식민지인에게는 독립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其二〉 카프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절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뜻두고 못일움은/그대弱한 탓이오니.//(중략)/괴왕밭칠 이몸이니/옛간들 무삼하리//”(〈其四十〉일부)라고 투쟁의지를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권구현 시조의 중심내용은 계급문제(“종”), 부조리한 현실(“압박만이 보수”)을 폭로하는 데 있다. 이는 시조가 국민문학과 계열의 담론뿐만 아니라 카프계열의 담론까지도 담아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 시조 역시 가난의 문제를 다룬 시이다.

20) 임선목, 『근대시조집의 양상』, 단대출판부, 1983, 195-196쪽.

奴隸에서 機械로
이몸을 다 팔아도

한끼가 極難하니
生來의 무삼罪_ㄴ가

天地야 넓다하되
발뼉칠곳 바이업서

— 〈其四〉, 『흑방의 선물』 —

옷도업고 밥도업고
넘조차 업사오니

天地야 널으건만
寂寞하기 뭇업고야

두어라 自由二字
이내벗 되올너라

— 〈其二十〉, 『흑방의 선물』 —

〈其四〉는 노예처럼, 기계처럼 일하여도 한 끼 식사가 힘든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살아있음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는 가난의 고통을 토로한 것이다. 〈其二十〉은 옷도 없고, 밥도 없고, 님도 없는 적막한 인생을 폭로하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옷과 밥은 물론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까지 만들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님을 만들 수 없는 시적 화자의 인생은 적막할 뿐이다. 또한 일제 강점하의 농부들의 생활고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의지를 뜨겁게²¹⁾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실비판·부정이란 측면에서 조선후기 사설시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

2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291쪽.

처럼 권구현은 시조장르를 '일제와 맞선 민족문학'²²⁾으로 이끌어냈으며,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에 카프문인도 일조했음을 보여주었다.

3. 승려·독립운동가의 시조 - 비문단인 한용운

1) 선행연구 분석

한용운은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문인이자 독립 운동가이며 승려였다. 한용운은 그의 중심이 문인, 독립운동가, 승려 중 어디에 있는지를 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승려로서의 삶이 문학작품에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인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와 승려의 삶을 아우르는 기반 혹은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한용운의 문학세계는 1918년, 그의 나이 40세에 창간한 『惟心』(창간호)에 〈心〉을 발표하면서부터 1940년대까지 이어진다. 일제 강점기 내내 문인으로 활동을 했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문인으로서의 평가는 단 두 편뿐이었다. 유광열이 『님의 침묵』의 독후감을 『시대일보』(1926.5.31)에 발표한 것과 주요한이 「愛의 祈禱, 祈禱의愛-한용운 근작 『님의 침묵』 독후감」을 『동아일보』(1926.6.26) 발표한 것뿐이다. 해방 후에 비로소 '문인 한용운'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1948년에 '만해한용운전집간행위원회'가 결성되었지만 그 당시엔 전문적 시인이나 문학연구가가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후 서정주가 편집한 『作故詩人選』과 『韓國詩人全集』에 시가 소개되어 시인 한용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1960년대에 와

22) 위의 책, 292쪽.

서 시인 한용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²³⁾

이처럼 한용운이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우선 한용운 삶의 영역이 방대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용운은 800페이지가 넘는 『불교대전』을 집필하고 불교대증화에 힘쓴 불교학자로, 일생을 호적도 없이 냉돌방에서 보낸 애국지사로서 더 주목되었던 것이다.

또한 비문단인이었기에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한용운이 살았던 시대는 문단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리는데, 일제 강점은 정치적 시련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기현상을 가져왔다. 문학의 사조나 흐름은 시대정신과 더불어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문단의 경향은 당대를 중심으로 전·후시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추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식민지라는 공황상태에서 서구문학의 사조와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용되어 혼선을 빚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문단 춘추전국시대에서 한학을 공부한 한용운, 불교학자인 한용운, 비문단인 한용운을 조명할 객관적 관점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용운은 구한말에 태어나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즉 일제 강점기의 우리 문학사와 함께 한 문인이라는 점에서, 전통장르인 한시·시조와 신흥장르인 자유시를 질·양 양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창작한 문인이라는 점에서 문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용운의 문학세계는 깊이와 넓이에서 상당하다. 그는 『님의 침묵』을 탈고한 시인이기 이전에, 한학을 공부한 문인으로서 한시와 시조를 다량 창작한 문인이며, 소설, 수필을 발표한 문인이다. 한용운의 한시 연구와²⁴⁾ 시조 연구는²⁵⁾ 198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소설연구는²⁶⁾ 1990

23) 신용협, 「한용운 문학의 연구사적 비판과 전망」,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 연구』, 새문사, 1982, 34쪽.

24) 이병주, 「만해선사의 한시와 그 특성」,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년대 이후 시작되었다. 이는 1960년대 이래 한용운의 자유시가 집중조명 받은 것에 비할 때, 시기적으로 늦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미진하다. 물론 연구 성과가 연구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양이 문단적 관심과 조명도와는 다소간 관련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미흡한 한시와 시조 연구 가운데, 한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반

연구소, 1981.2.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의 한시론」,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한창열, 「만해한용운연구-만해한시와 「님의 침묵」의 비교적 고찰」, 한양대(석사), 1987.

박원길,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전북대(석사), 1988.

김미선,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청주대(석사), 1989.

박정환,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충남대(박사), 1991.

최태호, 「만해·지훈의 한시연구」, 한국의국어대(박사), 1994.

장선휘, 「한국근대의 한시연구」, 전남대(박사), 1997.

이종찬, 「만해의 한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24집,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 2001.12.

이승하, 「한용운의 옥중 한시 감상」, 『유심』 통권7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1. 겨울.

장석문,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강원대(석사), 2002.

박태성, 「만해 한용운 한시의 몇 가지 소재에 대하여」, 『단산학지』, 전단학회, 2002.12.

25) 김종균, 「만해 한용운의 시조」, 『국어국문학』 83호, 국어국문학회, 1980.

박항식, 「한용운의 시조」,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81.2.

장미라, 「한용운연구-그의 시조를 중심으로」, 중앙대(석사), 1981.2.

김대행, 「한용운의 시조와 삶의 문제」,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김광원, 「만해 한용운 시 연구」, 원광대(박사), 1996.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시와 시조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동국대학교사범대학국어교육과, 2000.12.

26) 김용범, 「만해 한용운의 소설 <흑풍>연구」, 『한양어문연구』, 한양대어문연구회, 1990.12.

김미애, 「한용운 소설 연구」, 효성대(석사), 1991.

권오현, 「만해 한용운 소설 연구」, 『계명어문학』 11집, 계명어문학회, 1998.2.

황수남, 「만해 소설 <죽음>에 나타난 페미니즘」, 『인문학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2.6.

면, 시조는 1980년대에 5편, 1990년대 1편, 2000년대 1편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향은 한용운의 시조가 그의 자유시와 한시에 비해 문단의 관심과 문학사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조 연구가 주춤거린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발표된 한용운 시조의 편수에 있다. 시조는 한시와 자유시에 비교했을 때 발표 편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조의 편수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논자들은 한용운의 시조 작품이 더 발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한용운이 구한말에 태어나 한학을 공부한 학자이므로, 시조창작은 일상생활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한용운도 해수욕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시조로 형성화하여 기행문에 실었다. 그래서 이를 소위 “생활시”²⁷⁾라고 평하는데, 이 같이 일상생활에서 지은 작품들은 대부분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발표되지 않은 일상 생활시들이 발견된다면 한용운의 시조는 더 풍성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한용운의 시조를 36편²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한용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연시조로 묶여있는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早春〉은 3수 연시조로 묶여 있는데, 이 중 〈早春2〉는 『불교』 103호(1933.1)의 권두언이었고, 〈早春3〉은 105호(1933.3)의 권

27) 김중균, 「만해 한용운의 시조」, 56쪽.

김광원, 「만해 한용운 시 연구」, 24쪽.

28) 35편설-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김광원, 「만해 한용운 시연구」, 원광대(박사), 1996.

36편설-김대행, 「한용운의 시조와 삶의 문제」,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 시와 시조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동국대사범대국어교육과, 2002.12.

50편설-장미라, 「한용운연구」, 중앙대(석사), 1981.

51편설-김중균, 「만해 한용운의 시조」,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80.

두언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후대 전집에는 연시조로 편성되어있는데²⁹⁾, 이 같은 경우를 재정립한다면 현재 알려진 시조의 편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이유는 시조시인의 위상 문제이다. 그동안 1920년대-1930년대 시조창작은 국민문학파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비문단인이었던 한용운의 시조에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1920년대에 시조집을 발간한 권구현의 시조가 조명 받지 못한 이유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한용운은 『님의 침묵』(1926)에 앞서 「무궁화를 심고저」를 『개벽』(1922)에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 창작을 주춧하던 1930년대에도 시조 창작을 지속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시조에 대한 한용운의 관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한용운의 시조에는 한용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승려로서의 삶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시조를 통해서 그의 문학세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그의 삶을 조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더 나아가 한용운의 시조는 1920년대-1930년대 시조 창작층이 국민문학파뿐만 아니라 승려를 포함한 문단 외 문인에까지 확장되었음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2) 승려·독립운동가의 시조 세계

(1) 독립운동가의 삶을 반영한 시조

한용운이 처음 발표한 시조는 <무궁화심고저>인데, 이 시조는 1922년 9월 『개벽』에 발표될 때 ‘獄中詩’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옥중시’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 3·1운동 때 주동자로서 「공약 삼장」을 작성하고, 독립선언에 관한 연설을 한 죄목으로 3여년 감옥살이를 할 때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자유시 창작이 1920년대 문단의 큰 흐름이었고

29) 김대행, 「한용운의 시조와 삶의 문제」, 33-34쪽.

한용운도 〈心〉이라는 자유시를 창작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시가 아닌 시조로 옥중 심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궁화심으과저〉에서 찾을 수 있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네나라에 비춘달아
 석창살 넘어와서
 나의마음 비춘달아
 桂樹나무 베어내고
 無窮花를 심고저

— 〈무궁화심으과저-옥중시〉 일부분 —

위 시조는 ‘用事’³⁰⁾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달과 계수나무를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 것이다. 먼저, 첫 구인 “달아달아 밝은달아”는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에서 用事한 것이다. 여기서 한용운은 이태백의 유희적 달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일제강점이라는 현실인식의 달로 변용시켜 더 깊은 의미를 창출한 것이다. 계수나무도 동화 속의 평화로운 세계의 표상이 아닌 제국주의의 억압으로 재창조하였는데, 이는 계수나무가 1900년대에 일본에서 수입한 일본 나무라는 데에서 유추할 수 있다. 민화와 동요에서는 憧憬의 나무로 등장하는데, 한용운은 동경의 계수나무가 아니라 일제 강점을 상징하는 억압의 계수나무로 변용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달에 비친 계수나무 즉 일본 제국주의를 베어내고 조선의 國花인

30) 用事란 경서나 사서 또는 諸家の 산문이 가지는 특징적인 관념이나 事述을 이·삼의 어휘에 집약시켜 원관념을 보조하는 觀念蘇生이나 觀念倍化에 채용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용사의 대상은 고대의 신화, 민간전설, 문학작품의 한 구절도 용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사의 주 기능은 은유인데, 일반적인 비유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 또한 사건을 몇 개의 글자에 축약시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무궁화를 심는 것으로 민족독립의 염원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이는 식민지 현실인식과 조국을 되찾고자 한 독립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독립의지가 민족형식인 시조로 형상화된 것이다.

다음 시조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을지문덕을 불러 세워 자신의 뜻을 드러낸 작품이다.

李舜臣	사공삼고
乙支文德	마부삼어
破邪劔	높이들고
南船北馬	하야볼까
아마도 님 찾는 길은	
그뿐인가 하노라	

— 〈無題〉 —

한용운은 역사적 인물 충무공과 을지문덕을 불러 세웠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외적과 싸워서 이긴 장수들이다. 을지문덕은 612년 수나라의 우중문이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때 쾌거를 일으킨 장수이고, 충무공은 조선시대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쾌거를 일으킨 장수이다. 시적 화자는 외적을 통쾌히 무찌른 두 장수를 사공과 마부로 삼아서 님 찾는 길을 나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님은 사사로운 연인이 아니라 국권을 상실한 조국을 의미할 것이다.

다음 시조에서는 한용운의 결의가 더욱 돋보인다.

사나이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하여 볼까.
 발을 팔아 책을 살까
 책을 덮고 칼을 갈까.
 아마도 칼 차고 글 읽는 것이
 대장부인가 하노라.

— 〈男兒〉 —

그는 구한말에 태어난 애국지사이다. 신라의 화랑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평온한 시기엔 책을 읽고, 민족 위기의 순간엔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 같은 사고체계에서 자란 한용운도 국권상실의 민족위기 순간에 칼 차고 글 읽는 것이 대장부임을 되새긴 것이다. 이러한 반성과 각성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1930년대의 한용운의 시조창작은 국권회복과 관련되어 있다. 즉 국권회복을 염원한 민족형식 추구였던 것이다. 한용운은 국권회복의 염원, 민족주의 사상을 서구 자유시가 아닌 조선의 민족형식인 시조를 통해서 형상화했던 것이다. 내용이 형식을 선택하는 문학의 내적 원리가 만해의 시조 선택에 작동한 것이다.

(2) 승려의 삶을 반영한 시조

한용운의 시조에는 승려의 삶과 사상이 내재해 있다. 이처럼 당시에 불제자들의 시조가 종종 선보이기도 했다. 불교계의 시조는 1912년에 『조선불교월보』가 창간되면서 처음 창작된 뒤, 1924년 이후의 『불교』지에 이르러서는 작품이 많아졌다.³¹⁾ 승려가 유학자의 풍류를 위해 마련된 시조에 참여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승려로서 시조를 지은 사람은 한용운, 권상로, 김대은 등이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시조로 다룬 신도는 이보다 더 많았다. 이로써 시조는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불제자까지 함께한 당대 보편적인 장르였음이 입증된 셈이다.

천하의 善知識아
너의 家風 高峻한다.
바위 밑에 喝—喝과

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287쪽.

구름 새의 痛棒이라.
문노라, 苦海衆生
누가 濟空하리요.

— 〈禪友에게〉 —

위 시조는 자기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승려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한용운은 “불교는 염세적으로 孤立獨行하는 것이 아니요, 救世적으로 入泥入水하는 것이다”³²⁾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중을 떠나서 불교를 행할 수 없고, 불교를 떠나서 대중을 제도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다음 시조에도 한용운의 불교 대중화론이 내재해 있다.

부처님 되라거든
중생을 여의지 마라
극락을 가려거든
지옥을 피치 마라.
성불과 왕생의 길은
중생과 지옥

— 〈無題〉 —

한용운은 한결같이 불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곧 불토이며, 예토를 떠나서는 정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생 구제와 불국 건설을 주장하였으며,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종래의 山中佛敎를 巷閭佛敎로, 승려불교를 민중불교로 만들자고 외쳤다.³³⁾ 그래서 한용운은 “지금 중생들은 식민 정치의 굴레에 묶여 신음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신음을 하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에 그의 실천적 행보의 하나로 평생을 호적도 없이, 냉돌방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는 대승불교를 전파한 승려의 삶과 민족 독립을 꿈꾼 애국지

32) 『한용운전집』 2권, 신구문화사, 1974, 167쪽.

33) 이선영, 「한용운의 역사 의식」,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연구』, 56-60쪽.

사의 삶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4. 권구현과 한용운 시조의 문학사적 의의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는 1920년대-1930년대 시조부흥의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1920년대-1930년대의 시조를 카프와 국민문학과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대두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1920년대-1930년대 문단 흐름이 카프와 국민문학과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그동안의 시조연구가 국민문학과인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 등의 시조연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프로문인 권구현과 비문단인 한용운을 배제된 것이므로 1920년대-1930년대 시조의 총체적인 평가라고 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지만, 1920년대에는 단 2권의 개인 창작 시조집이 발간되었다. 권구현의 『흑방의 선물』과 최남선의 『백팔번뇌』가 그것이다. 이는 권구현의 시조가 1920년대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그런데 권구현의 시조가 “프롤레타리아 시조”라 평가받았던 것처럼, 권구현은 카프문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시조세계는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의 삶을 통해 망국의 현실을 폭로하는 데 있었다. 권구현이 카프문인으로서 시조집을 발간하였다는 사실은 1920년대 시조부흥운동이 카프를 의식한 국민문학과와의 결과물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비문단인 한용운은 시조부흥운동이 형성되기 이전, 1922년에 옥중시 〈무궁화를 심으과저〉를 발표하였으며, 1930년대에 독립운동가의 삶을 시조로 형상화해 왔다.

이로서 보건데, 1920년대-1930년대 시조가 카프와 국민문학과와의 대결구도에서 대두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민족적 저항, 민족혼의

계승의 차원에서 대두된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평가만이 1920년대-1930년대 국민문학파에 의해 전개된 시조부흥운동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프문인 권구현과 비문단인 한용운의 시조도 합당한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교문화권에서 형성된 시조에 불교사상까지 담아내어 시조의 사상적 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시조는 고려 말에 형성되어 조선 초에 완성된 장르로서 유교문화권에 속한 장르이다. 개화기, 일제강점기의 애국·애족·독립사상을 형상화한 시조도 유교의 충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1920년대-1930년대에는 한용운을 비롯한 불제자들이 시조창작에 동참하였다. 특히 승려 한용운은 불교사상 및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시조로 형상화해내었다. 이는 시조가 유교문화권을 넘어서서 불교의 사상까지 담보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시조 창작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상적 확대 내지 유연성을 이끌어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는 국민문학파의 시조와 더불어 1920년대-1930년대의 시조를 카프의 안티의식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민족혼, 민족형식 구현이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이자, 시조 창작층을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5. 결론

본고는 1920년대-1930년대 시조의 총체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가 미흡한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를 분석하였다. 카프동인시절 시조집 『흑방의 선물』을 간행한 권구현의 시조창작은 “프롤레타리아 시조”를 개척한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은 시

조를 유학의 경계를 넘어 불교의 세계까지 이끌어낸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권구현과 한용운의 시조는 국민문학과 시조와 더불어 1920년대-1930년대의 시조를 안티 카프라는 목적문학이 아닌 일제강점기에 민족혼, 민족형식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장르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시조 창작층을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본고는 1920년대-1930년대 시조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1920년대-1930년대 시조가 카프와 국민문학과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카프문인과 비문단인들의 시조를 더 발굴해야 할 것이며, 국민문학파들의 시조도 카프연계연구가 아닌 일제강점기의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차후의 과제로 남기더라도 본고의 의의는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있다.

〈참고문헌〉

- 『시대일보』, 1926.6.7.
『동광』 13호, 1927.5.
『동아일보』, 1938.4.24.
『동아일보』, 1938.6.14.
『한용운전집』 1·2권, 신구문화사, 1974.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시와 시조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동국대사범대국어교육과, 2000.12.
권오현, 「만해 한용운 소설 연구」, 『계명어문학』 11집, 계명어문학회, 1998.2.
김광원, 「만해 한용운 시 연구」, 원광대(박사), 1996.
김대행, 「한용운의 시조와 삶의 문제」,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김미선,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청주대(석사), 1989.
김미애, 「한용운 소설 연구」, 효성대(석사), 1991.
김열규·신동욱(외), 「한용운의 한시론」, 『한용운연구』, 새문사, 1982.

- 박원길,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전북대(석사), 1988.
- 박정환,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충남대(박사), 1991.
- 박태성, 「만해 한용운 한시의 몇 가지 소재에 대하여」, 『단산학지』, 전단학회, 2002. 12.
- 박항식, 「한용운의 시조」,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81.2.
- 이승하, 「한용운의 옥중 한시 감상」, 『유심』 통권7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1. 겨울.
- 이종찬, 「만해의 한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24집, 동국대한국문학연구, 2001.12.
- 장미라, 「한용운연구-그의 시조를 중심으로」, 중앙대(석사), 1981.2.
- 장성문, 「만해 한용운의 한시 연구」, 강원대(석사), 2002.
- 장선희, 「한국근대의 한시연구」, 전남대(박사), 1997.
- 최태호, 「만해·지훈의 한시연구」, 한국외국어대(박사), 1994.
- 한창엽, 「만해한용운연구-만해한시와 「님의 침묵」의 비교적 고찰」, 한양대(석사), 1987.
- 황수남, 「만해 소설 〈죽음〉에 나타난 페미니즘」, 『인문학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2.6.
- 김재홍, 『한용운문학연구』, 일지사, 1982.
- 고명수, 「한용운의 후기시와 시조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동국대사범대국어국문학과, 2000.12.
- 고현철, 「권구현(權九玄) 시조연구」, 『국어국문학』,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0.9.
- 김경복, 「권구현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론」, 『국어국문학』, 부산대국어국문학과, 1995.12.
- 김덕근, 「한국문학의 아나키즘 수용 연구」, 『인문과학논집』,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4.12.
- 김덕근, 「黑星 權九玄論」, 『우암논총』, 청주대학교대학원, 1992.2.
- 김용범, 「만해 한용운의 소설 〈흑풍〉연구」, 『한양어문연구』, 한양대어문연구회, 1990.12.
- 김종균, 「만해 한용운의 시조」, 『국어국문학』 83호, 국어국문학회, 1980.
- 박명용, 「民族的 抵抗, 아나키스트 詩人의 苦惱」, 『홍익어문』, 홍익대 홍익어문연구회, 1992.4.
- 박영희, 「한국현대문학사」, 『사상계』 68호, 1959.3.
- 박인기, 「한국현대문학론」, 국학자료원, 2004.
- 박항식, 「한용운의 시조」,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국문학연구소, 1981.2.
- 염무웅, 「님의 침묵하는 시대, 신동욱(편)」, 『한용운』, 문학세계사, 1993.
- 이병주, 「만해선사의 한시와 그 특성」, 『한국문학연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1.2.
- 임선목, 『근대시조집의 양상』, 단대출판부, 1983.
- 정한모, 「만해시의 발전과정서설」, 『관악어문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9.

조두섭, 「1920년대 한국 아나키즘시의 두 양상」, 『인문과학연구』, 대구대 인문과학 연구소, 1996.1.

_____, 「권구현시연구」, 『대구어문논총』 7호, 대구어문학회, 1989.

_____, 「權九玄의 아나키즘文學論 研究」, 『대구어문논총』, 대구어문학회, 1994.6.

조운, 「병인년과 시조」, 『조선문단』 19호, 1927.

<Abstract>

A study on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in Kwon
Goohyeon's and Han Yongwoon's Sijo

Yeo Ji-Sun

Sijo is a genre which has been steadily loved by Korean. Particularly, 1920's through 1930's, the Revival Movement of Sijo is made by the school of Literary for People, including Choi Namseon, Lee Byeonggi and Lee Eunsang. And Kwon Goohyeon, a member of KAPF, and Han Yongwoon, not belonging to any literary group were interested in Sijo.

Kwon Goohyeon, both a member of KAPF and an anarchist has published *A Present of Black Room*(1927), which is one of the two published in 1920's-1920's saw only two volumes of Sijo works be published: Choi Namseon's *108 Agony*(1926) and Kwon's.

However, Kwon Goohyeon's work has not been illuminated, compared with Choi Namseon's and the Revival Movement of Sijo by the school of Literary for People. It is because Korean literary world has been

under the anti-communism ideology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However, it caused to explore proletarianism Sijo (Joh woon) and proletarianism poetry (Park Yeonghee) that Kwon is a member of KAPF and an anarchist.

Han Yongwoon, not belonging to any literary group, was very famous as the poet of *My Beloved One's Silence*(1926), not as a Sijo poet. It means that he has not been illuminated as a Sijo poet. However, his Sijo is enough to contain his various features such as a man of Independence Movement, a Buddhist monk, a lyrical poet and so on. His first Sijo is *For Planting Mookoonghwa-Poetry Written in Prison*(1922), which has been published four years prior to *My Beloved One's*. And his affection on Sijo is inferred from the fact that he has constantly published Sijo more than free vers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a position of Sijo 1920's through 1930's from a study on Kwon Goohyeon's and Han Yongwoon's Sijo. Sijo, Korean traditional literary genre, was written by most of the poets including not only the school of Literary for People but Kwon Goohyeon and Han Yongwoon 1920's through 1930's. As a result, the writing of Sijo was not a partial movement by the anti-KAPF group, but by a paradigm in 1920's through 1930's.

Keywords : 1920's through 1930's, Sijo, Kwon Goohyeon, Han Yongwoon, *A Present of Black Room*(1927), *For Planting Mookoonghwa- Poetry Written in Prison*(1922)